

불교문화재 12건 보물 지정

송림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등

‘칠곡 송림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등 12건의 불교문화재가 무더기로 보물지정 예고됐다.

문화재청(청장 이진무)은 구립 23일 ‘칠곡 송림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등 불교문화재 9건과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제1~10’ 등 전적 2건, ‘영천 은해사 순치 3년명 금고 및 금고기’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했다.

지정 예고된 불교문화재 중 조각은 1657년 조성된 ‘칠곡 송림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과 같은 시기의 ‘칠곡 송림사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이 있다. 전문가들은 “두 작품 모두 17세기 조선 불교조각을 대표할만한 대작”이라며 불교조각사 및 조각유파 연구에 귀중한 작품으로 평가했다.

불화로는 18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괘불화인 ‘성주 선석사 영산회괘불탱’을 비롯해 ‘포항 보경사 괘불탱’

‘대구동화사 아미타회상도’ 경주 기림사 비로자나삼불회도 ‘영천 봉림사 영산회상도 및 복장유물’ ‘청도 운문사 비로자나삼신불회도’ 등 6점이 지정 예고됐다.

전적으로는 ‘<묘법연화경> 권제 4~7’ 등 12~15세기에 제작된 주요 전적 7종을 포함한 ‘대구 동화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 전적’과 당의 반라밀제(般刺密帝)가 번역하고 송나라 계환(戒環)이 주해(註解)한 것을 15세기 전반에 간행한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제1~10’ 등 전적 2건, ‘영천 은해사 순치 3년명 금고 및 금고기’ ‘포항 보경사 괘불탱’ <수능엄경>

이와 함께 ‘영천 은해사 순치 3년명 금고 및 금고기’도 함께 지정 예고됐다. 오준영 학예연구관(문화재청 동산문화재과)은 “영천 은해사 순치 3년명 금고 및 금고기는 현재로는 보기 드문 17세기 금고(金鼓)로서 규모도 크고 보존상태 또한 양호해 17세



기 전반 금고의 면모를 알려주는 의미 있는 자료”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지정 예고된 문화재 가운데 ‘칠곡 송림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등 9건 불교문화재는 문화재청과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범

해)가 2002년 시작한 전국 사찰 불교문화재 일제조사사업 중 2006년 대구·경상북도 남부 지방 대상조사 결과 신발견·재평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고려불화 독보적 존재”

봉은사 특강서 유홍준 교수 ‘예찬론’ 펼쳐

송례문 화재로 문화재계는 2008년 대변혁을 맞았다. 사찰 전각 등 목조건축물을 비롯해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위한 전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조선왕실의례’ 등 해외유출문화재에 대한 환수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은 한해를 보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에서 구립 25일 고려불화를 주제로 강연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강사는 유홍준 前 문화재청장(명지대 교수)으로 ‘아! 아름다워라. 고려불화여!’를 주제로 강연했다.

“고려불화는 독보적인 문화유산입니다. ‘고려불화전’이 열리는 곳이 있다면 꼭 찾아가 보세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유 前 청장은 “석굴암은 아잔타 석굴 등과, 고려청자는 송대의 청자 등과 경쟁해야 하지만 고려불화는 독보적이다”라며 고려불화에 대한 예찬을 그치지 않았다.

고려불화는 2m 높이의 작은 탕화가 대부분이다. 원나라 시대 저술된 <도화견문록>에 고려불화를 두고 “섬세하고 화려했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고려불화는 예로부터 예



구립 25일 봉은사에서 ‘고려불화’와 관련해 특강한 유홍준 前 문화재청장.

술성을 인정받아왔다.

고려불화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다. 1967년 일본의 미술사가 구마가이 노부오가 <조선학보> 제44집에 ‘조선 불화징’을 게재하면서 고려 및 조선 초기 탕화 70여 점이 일본에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공개한데 이어 미술사가 고유섭 선생의 유고를 모은 ‘한국미술사급(및 미학논고)’에

‘수월관음도’ 등 고려불화를 설명하면서 알려졌다.

정우택 교수(동국대)에 따르면 현재 현존하는 고려불화는 160여 점. 이중 대다수는 일본 등 해외에 반출된 상태다. 국내에는 ‘오백나한도’ 외에 고려불화가 없었으나 호암·호림미술관에서 3점을 구입했다. 하지만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여전히 고려불화가 없다.

유홍준 前 청장은 “일본 유명사찰에는 고려불화가 있지만 국내에는 드문 상황이 일제 약탈에 의한 것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 前 청장은 “고려·조선시대에 정상적인 경로로 전해졌을 수도 있다”면서 “불방을 관음도 등 상당수 문화재 등은 약탈됐다며 둘러달라는 국민정서 때문에 일본 측에서 공개를 꺼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특강은 주지 명진 스님을 비롯한 봉은사 대중스님들과 휴일을 맞아 봉은사를 찾은 신도 1000여 명이 보유안 안팎을 가득 메운 채 성황리에 개최됐다.

글=조동섭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세계교수불자회 창립해 종교평화 기여”

교불련 제13대 회장 최용춘 교수

“(가칭)세계교수불자회를 창립해 학계간 종교평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구립 19일 한국교수불자연합회(이하 교불련) 정기총회에서 제13대 회장에 선출된 최용춘 교수(상지영서대·법령 峯峰·사신)는 교불련의 비전을 이같이 제시했다.

최용춘 회장은 “유럽 등 해외에서는 선(禪)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간화선 종주국인 한국불교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아쉽다”며 “임기 중 단체를 설립할 준비위원회를 대동시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계교수불자회는 불교 교류가 활발했던 동남아, 인도, 일본뿐만 아니

라 유럽, 남미의 불자 교수와 불교에 관심 둔 교수까지 섭외하게 된다.

대외적 활동에 앞서 교수불자간 화합 도모 등 대내적 불교환경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최 회장은 “교불련 불어 교수불자수련대회 참여 회원들을 늘리고 신입회원 관리를 강화해 일신(一新하겠다)”며 “불자교수를 불교화 생회 지도교수로 위촉하는 방법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대학 불교학생회를 돕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타종교와의 대화폭도 넓히게 된다. 현재 기독교교수협의회와 매년 개최하던 학술대회를 원불교, 가톨릭 등 다종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용춘 회장은 “각 종교단체와 관련한 교수는 물론 전법회관 등에서 활동하는 선생님도 모시고 공동세미나를 열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의 불연(佛緣)은 어린 시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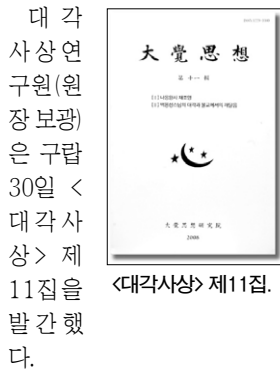
부터 시작했다. “어려서 할머니 손 잡고 절을 찾던 기억이 난다”는 최용춘 회장은 두 아이 역시 태고부터 절에서 시작했다. 최 회장의 수행 주특기는 관음정진. 가정과 연구실에서도 잠잠이 관음정진을 쉬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뿐만 아니다. 최 회장 가족은 구립 31일부터 신년 첫날에는 월정사를 찾아 10km 구간을 3보1배하며 새해를 맞은 불자들이었다.

최용춘 회장은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儲惡莫作 衆善奉行)는 말은 세상 어린 아이도 알지만 팔손 노인도 실천하기 어렵다”며 “이런데 머물지 않고 부사와 수행으로 실천하는 불교를 강조했다.”

최 회장은 “회장이 됐다고 전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불련 창립이념과 원로 선배 등 교불련 회원들의 대의를 존중해 교불련의 잠재력을 구체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동섭 기자

‘대각사상’ 11집 발간



‘대각사상’ 제11집.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은 구립 30일 <대각사상> 제 11집을 발간했다.

<대각사상> 제 11집에는 2008년 1월 25일 영덕에서 열렸던 ‘나용 왕사 재조명 학술세미나’ 논문과 ‘백용성 스님의 대각과 불교에서의 깨달음’을 주제로 4월29일 대각사(주지 장산)에서 발표된 논문 등이 게재됐다. (02)581-3138 조동섭 기자

“미래 한일 불교학 지표 새롭게 정립”

‘일본불교사 근대’ 출간

현대 한국 불교학의 연원이 원효 등 한국 승려가 아닌 일본 불교학에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근현대 일본 불교학계에서 한국 불교학계로 유입된 연구 성과가 크기 때문이다. 때문에 근대 일본불교의 정립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가운데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인성) 원영상·윤기열·조승미 연구교수가 <일본불교사 근대>(동국대 출판부)를 번역·출간했다.

<일본불교사 근대>는 근세 및 근대일본 불교사 전공자인 카시아하라 유엔 명예교수(일본 오타나미대

의 저서다. 1868년 메이지유신 이전 막부 말기의 사회적 변화부터 근대 일본불교를 서술한 책은 개항기 급변하는 정치외교적 상황에 맞춰 불교계 움직임을 기록했다. 교단 불교를 비롯해 일반불교인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불교적 활동이 엿보이는 카시아하라 명예교수의 서술방식은 근대 초기 불교교단을 엿보는 주요 관점으로 평가받는다.

메이지(明治), 다이쇼(大正), 쇼와(昭和)의 일본 연호 순으로 전개된 책은 1945년 태평양 전쟁 패전 이후 현대사회에서의 불교의 모습을 소개했다.

원영상 연구교수는 “한국이 과거 백제로부터 일본에 불교 전해진

사실을 중심으로 일본불교연구를 진행한 반면 일본은 한국에서의 불교유입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지 않다”며 “일본불교와 한국불교의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연구교수는 “현재 일본은 불교적 정신이 생활화된 국가로서 경제적 성장을 발판으로 국제 사회에서 정치·문화의 힘을 확장해가고 있다”며 일본불교를 정확히 이해할 것을 주문했다. (02)2260-3483 조동섭 기자



동국대출판부가 출간한 ‘일본불교사 근대’.

佛紀 2553年 乙丑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준비광명 온누리에

사단법인 대한불교 금강종

대승정 덕인당 석성제 예하
종정 무학당 석송천 예하

승정원장 법선당 석무중 / 부원장 석무상 원로원장 월서당 석성목 / 부원장 석법진

중앙총회위원장 법화당 석일타
중앙총회 부위원장 학성당 석정인 / 학철당 석정암
중앙총회 사무총장 석현우 법사

총무원장 법선당 석영봉
시정위원장 법선당 석지산
포교위원장 학산당 석정대 / 포교원부위원장 석정산
교육위원장 법성당 석지덕
문화위원장 일현당 석덕일 / 문화원부위원장 석보성
고시위원장 법일당 석일각
수선위원장 선재당 석도공
복지위원장 법영당 석정도 법사
비구니위원장 효경당 석지명 / 비구니부위원장 석정명, 석정연
종정예하 예경실장 학림당 석정목
총무원장 사서실장 겸 총무부장 이함당 석정형

서울교구위원장 서원암 반야지
대구교구위원장 범종사 정산
울산교구위원장 도성암 덕일
경기교구위원장 홍림암 홍련
충남교구위원장 구암사 무중
경북교구위원장 정암사 정암

부산교구위원장 반야사 일도
정산대전교구위원장 원광사 정인
강원교구위원장 지명사 지명
충북교구위원장 관음사 정명
무주전북교구위원장 삼불사 정안
경남교구위원장 금강암 정형

부처님의 크신 가르침을 받아 깨달음을 증득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며 세상을 살기 좋은 극락정토로 구현함에 어찌 승·속이 따로 있겠습니까? 우리 불교만물은 이런 어려서는 과오를 범하지 맙시다. 오로지 국익의 발전과 국민의 안정을 위해서 일치단합 합시다. 또한 불교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성직자를 많이 배출하여 중생을 널리 제도하고 불법을 흥포하여 부처님의 참된 사상을 실현해야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중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층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국익의 발전과 각 개개인의 인격완성에 모두 힘씁시다.

佛紀 2553年 己丑年 신년범어

삼매불출(三昧不出)
좌여석상(坐如石上)
악일념즉(若一念則)
대천계진(大千界震)

총정 무학당 승천 예하

충본산(충무원) : 대전시 유성구 송장동 294-4 (일성사) 전화 : 042)524-2149, 935-2279, 011-406-8538 (사) 대한불교 금강종 총무원장 석법산

내 몸내가 고치는 한국전통따주기 강좌(스님반)안내

1. 한국전통따주기(多注氣)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낫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2. 신비의 전통따주기 특징

가.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하며,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킵니다.
나. 월 1회 병 예방 따주기로 병 예방 및 건강관리 합니다.
다. 뼈 부러진 곳과 수술한 부위를 제외한 모두 적용됩니다.
(상기병, 혈압, 당뇨, 편도, 뒷머리 통증, 수질증, 탈모, 기억감퇴, 이명, 축농증, 감기, 안면풍, 여드름, 입술 무름, 비전, 백반, 목, 어깨, 가슴 통증, 협심증, 신경증, 편마중, 정신착란, 우울증, 공포증, 심장혈락, 스트레스, 적병(화병), 간장, 심장, 위장, 폐장, 신장, 담, 명문, 소장, 비장, 대장, 방광이 나쁜 자, 자손 얻기, 검은 피부, 위경련(해한), 허리, 다리, 좌골, 관절염, 변비, 냉병, 생리불순, 치질, 정력증강(약은), 병 예방 따주기, 담배 끊기, 술 줄이기, 癲癩, 있는 자, 열보유, 병명이 나오지 않는 자, 피가 부족한 자, 갑자기 기력이 저하된 자, 하지정맥 등)

라.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과 마음이 낫기 시작 합니다.
마. 비장만 따도 내 병의 반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바.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일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사.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3. 따주기 활용

신도포교 / 자신 건강관리 / 따주기 사회봉사 / 건강 북 짓기 / 생활 속 비상 따주기 (풍, 급체, 기절, 경기 등)

4. 강좌 세부내용 (한번 수강으로 이론, 실습 모두 학습)

가. 1일차(토요일 09:00 ~ 22:00)
● 우주의 기운과 인간 ● 인연과 탄생, 명부전, 병 ● 전통따주기 개요 ● 5행으로 본 인체

● 전통따주기, 각 따주기 ● 피가 생성되는 기초따주기 ● 신비한 비장따주기 ● 병 예방 비법 ● 마음의 세계(마음 10단계) ● 실습

나. 2일차(일요일 09:00 ~ 13:00)
● 신비한 수치의 비밀 ● 단편에 아는 남·녀 궁합 비법 ● 대운, 연운, 월운, 일운 비법 ● 수상 및 관상 보감 ● 성명 분석 및 작명 비법 ● 종향, 절의 및 답례, 지도사 수료증 수여

5. 강좌 일정 및 장소

가. 강 사 :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교수, 공학박사)
나. 일정 및 수강료(스님반)
(1)일 정 : 2009. 1. 17(토) 오전 9시부터 ~ 1. 18(일) 오후 1시까지 (1월 16일 금요일 저녁까지 도착)
(2)수강료 : 34만원(음향토방 숙박 및 자연식단 제공, 따주기 도구 및 비법교재 등 일체 제공)
※ 강의개시 3일전까지 선착순 예약자에 한해 수강(선착순 12명)
다. 장 소 : 충남청양교육장
라. 준비물 : 편한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문의처 : 041)944-2237, 010-3234-2237 (www.ddajuki.re.kr)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